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추수 II

(요 4:35-38)

이종윤 원로목사

3. 선교의 동기

누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동기를 가진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의무는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이므로 우리는 예배를 자주, 그리고 많이 드려야 합니다. 한 주일에 일억 원을 십일조로 바치는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한 주일에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은 한 주일에 천하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귀한 한 생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못한 사람도 관찮고 잘난 사람도 관찮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생명입니다.

전도하는데 몇 가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1) 복음에 대한 열정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쫓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선권을 내세울 자유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 삶의 제1순위입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자나 깨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전도의 대명령은 4복음서에서 그 강조점이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권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지막 심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마지막 때가 가까왔으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마지막 심판이 곧 올터이니 빨리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아들이 제자들에게 또 명령을 하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세계 복음화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아들이 제자

들에게 또 명령을 하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세계 복음화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 "땅끝까지"는 지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계층을 말합니다. 불교 계층, 공산주의 계층, 지식 계층 등 모든 계층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유익이 없습니다. 합당치도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2) 잃어버린 자에 대한 뜨거움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온 들판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3) 영혼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지극히 짧은 대화를 나누셨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10년 후에 미국에 이민 가서 거두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서 뿌린 씨앗이 제대하고 귀향해서 밭이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뿌리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도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들을 찾으며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임원회,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관련 3차 행정지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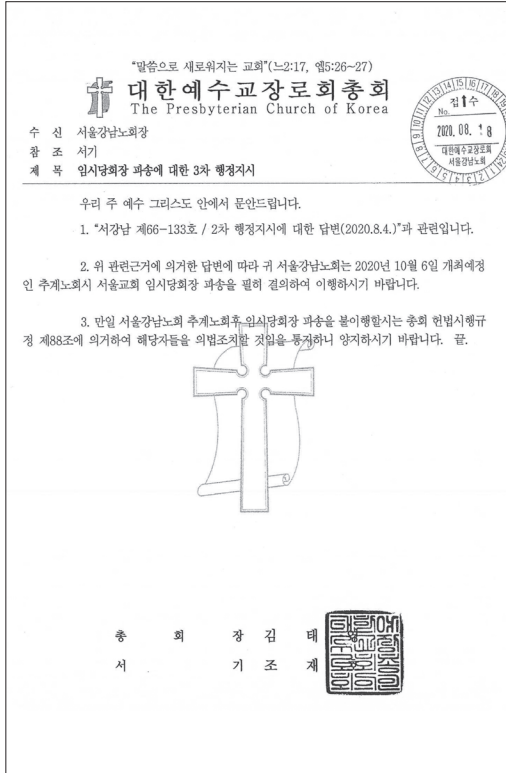
-불이행 시 헌법 상의 강력한 조치까지 할 것을 경고-

지난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에게 대하여 정직 6개월과 함께 서울교회와 서울강남노회에서 출교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서울교회는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어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강남노회에 당회장 역할을 대신할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했으나 서울강남노회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계속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총회는 1, 2차 행정지시를 통하여 속히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또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8월 12일 또다시 3차 행정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3차 지시는 위 2차 행정지시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가 보내온 답변에 따라 오는 10월 개최되는 가을노회에서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필히 결의하여 이행하고 만일 그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의거하여 해당자들을 의법조치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과 총회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 상회로서 서울교회의 소속한 정상화를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시행규정 제88조란?

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개정 2012. 9. 20]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위반·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불이행한 그 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

벌을 받게 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처리회장과 그 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나 제재방법 이외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처리회에 다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는 처분

② 그 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단, 부총회장의 선거권·피선거권, 총회 분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영선·권택숙 오천수 안재선·문수자 채교천
최영경 윤요섭·안재희 장창수·박혜정 정준혜
박찬성·심명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기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2020 성경암송대회 한 달 앞으로

2020년 성경암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다수의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못 한 성도들은 남은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7(주)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 10(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성도들 참여 주일 교회예배, 온라인예배로 전환

근래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증가로 정부는 8월 19일(수)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수도권 소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만 드리도록 요청하였고 교단 총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달라는 공문이 도착하였다.

이에 우리 교회는 정부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성도들의 건강과 주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 대신 지난 3월에 드린 예

배방식과 동일하게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당회원 및 직원 등 온라인예배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 성도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교회 학교는 현재처럼 각 부서 해당 교역자들이 SNS로 올리는 영상예배로 진행하고 새벽기도회와 찬양예배도 부목사들의 인도하에 동일하게 진행된다. 실시간 영상예배는 1부 시간에만 제공하지만 사정상 1부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2부

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문자로 보내 드리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다시 볼 수 있다.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 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성경암송대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제가 뉘게로 가리이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김현연 집사 (교육위원회 서기)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어느 때보다 길었던 54일간의 장마, 부패목사로 인한 교회가 당하는 손가락질, 그리고 수년간 인내함으로 기다려 오고 있는 대법원 판결.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내 주위에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 교회를 돌아보아도 이제 갈 곳이 없는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시절 군에서 힘든 훈련을 앞두고, 마침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 우연히 입대전에 작성한 글을 읽고는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글은 대학시절을 지나며 너무나 힘든 상황과 마음을 적어 놓았었지만, 그 글을 읽는 시점에서는 그 일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나이에, 경험도 적은, 여력도 없는 청년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을 뿐이었고, 지금 눈 앞의 힘든 훈련이 더 큰 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내 앞의 문제가 항상 가장 힘든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말씀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러려면 앉든지, 길가던지, 눕던지, 일어나던지 강론하고 가르치며, 손목에도 매고 기호로도 삼고 미간에 붙이고 드나드는 문설주, 문 다 붙여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간곡한 명령입니다.

서울교회도 시편 119편의 176절을 암송하는 성경암송대회를 9월 27일(주일)에 예선을 개최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외우기 어려운, 반복구간도 적고, 제일 긴, 시적 표현이라 이해하기도 어려운

암송 범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성경암송의 모범된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100세를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온 맘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아, 손수 큰 글씨로 작성하신 암송용 종이가 너털너털하도록 외우시고 기력을 다해 암송을 해주신 장로님, 어린 아이들을 설득하고 가장을 앞장세워 열외 1명 없이 온 가족이 합심하여 암송하는 가풍을 만든 모범 가족, 한 맘과 한 정성, 힘을 다하여 화합을 통한 완성의 모델을 만들어 준 다락방 식구들, 발음도 제대로 안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익혀 종알거리는 모델들에게는 벅찬 감동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박수를 아낌없이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번 2020성경암송대회의 시편 119편 암송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대가 싹튼다. 이번에 우리 서울교회는 어떤 성경암송의 모델이 만들어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가정의, 어느 다락방의, 누구의 되새김을 기대하고 계실까?

다들 기적과 쉽게 채워지는 것을 갈망하는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망을 안기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 느끼고 나조차 고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요 6:67)

저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도 어렵다 하나, 8절씩 22개의 알파벳 구성을 잘 활용하심에 따라 성경암송협동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암송함으로 깊은 신앙의 동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여기 있는데~, 제가 가진 어딜 감니까?!”



호산나대학 학생들이 등교하면 자발적으로 핸드폰 반납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실수업이 온라인수업 형태로 바뀌면서 비장애학생 및 발달장애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산나대학은 5월 6일 개학하여 지금까지 정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도 약 2개월간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게임이나 음란물 등에 몰입한 시간이 많아서 인지 개학 후 학습의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무절제한 핸드폰 사용 방지를 위하여 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에게 핸드폰 중독의 부작용 및 과도한 음란물 몰입의 폐해에 대해 2차례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소독 기능을 갖춘 핸드폰 보관함 2대(160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8월 10일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반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할지 우려가 있었으나 놀랍게도 등교 후 자발적으로 지정 위치에 핸드폰을 반납한 후, 수업 종료 후 찾

아가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앉으나 서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풍경들이 사라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놀이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수업 중 학생들의 집중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핸드폰 보관함이 생겨서 좋아요”, “핸드폰이 없으니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좋아요”, “시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언니, 오빠랑 같이 놀 수 있어 좋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중독에 가까웠던 기숙생 이00 학생은 “핸드폰을 학교에 맡기기 보다는 집에 두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고 있습니다.

호산나대학은 앞으로도 올바른 핸드폰 사용 문화가 정착되어 학생들이 신앙안에서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경필사 양식 다운로드

성경필사 양식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모바일버전, PC버전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더욱 많은 성도들이 성경필사에 참여하여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함께 하기 바란다.

서울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http://iseoulchurch.or.kr/>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동정

■ 박사학위수여 : 13교구 박용상 집사 (최영경 권사 부군) 경기대학교 정치대학 박사학위수여 (최우수논문상 수상)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게 하옵소서.
3.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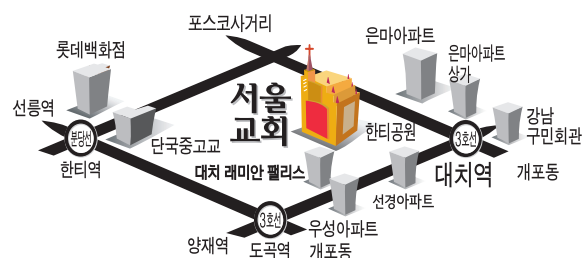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8월24일	월	겔 5-8		왕하 17-21	
8월25일	화	겔 9-12		왕하 22-25, 대상 1-2	
8월26일	수	겔 13-16		대상 3-6	
8월27일	목	겔 17-19		대상 7-11	
8월28일	금	겔 20-21		대상 12-17	
8월29일	토	겔 22-23		대상 18-25	
8월30일	주일	겔 24-27		대상 26-2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